

1. 일만순장 프로그램

1-1. 배경

온누리교회는 ‘꿈’으로부터 시작한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꿈은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루신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2002년에 들어서면서 성인출석교인이 2만 명이 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부흥은 축복인 동시에 위기이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느끼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의 문제점>

- 제한된 리더십 : 새가족 양육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부족
- 공간의 한계 : 예배, 사역, 교육, 주차 등의 절대공간의 부족
- 사역의 한계 : 국제화시대의 대응이 미흡

<해결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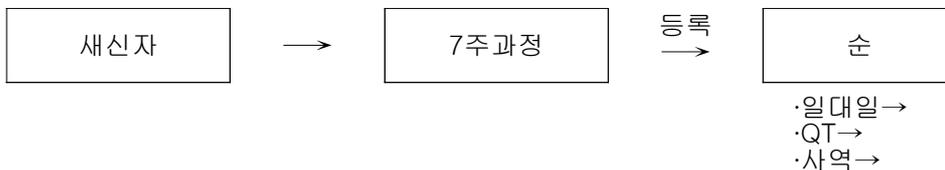
- 제한된 리더십 : 모든 순원의 순장화
- 공간의 한계 : 30개의 지교회
- 사역의 한계 : 사이버 대학(인터넷, 디지털)

1-2. 기존 시스템

일만순장 프로그램은 모든 순원을 순장으로 세움으로서 제한된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하였다. 먼저 기존의 리더를 세우던 시스템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신자 양육>

기존 새신자 양육 체계에서는 새신자가 등록과정을 신청하게 되면 7주 간의 등록과정을 거쳐 등록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순에 배정하게 되며 그 과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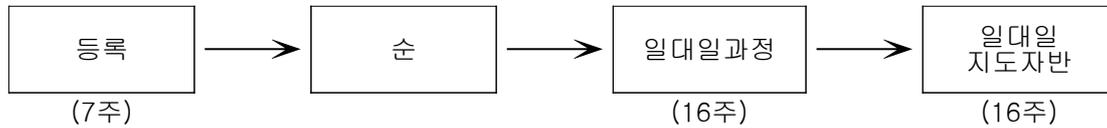
- 단점

- 등록 후 순 활동을 하지 않는 교우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새가족과 순의 연결성이 미흡
- 순, 일대일, QT, 사역 상호간의 연결성이 미흡

<일대일 과정>

기존 일대일 양육과정에서는 등록 후 일대일 동반자과정(16주)과 일대일 양육자과정(16주)

을 거쳐 일대일 양육자가 된다. 따라서 최소한 등록 후 32주 이상이 지나야 양육자가 될 수 있다.



- 단점

- 등록과정부터 거의 일년이 지나야 일대일 양육자가 될 수 있음.
- 양육자의 수가 부족하여 새가족 양육의 적체현상이 일어남

<기존의 순>

기존의 순은 교제 중심의 순으로서 QT를 통한 삶의 나눔, 부부와 남자를 중심으로 한 모임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 단점

- 순원들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전도에 열정이 없음
- 새가족 미정착자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순장을 세우는 기준과 분순의 기준이 없음

1-3. 비전

2000/10000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순원들을 10000순장으로 양육한다.

1-4. 방향

- 조직의 단순화
- 사역의 일원화
- 예산의 자율화
- 교회의 국제화

1-5. 목표

- 교회 : 사명을 새롭게 한다.
- 사역 : 사역으로 분산된 리더십을 순사역에 집중시킨다.
- 순 : 양육(전도 포함)순으로 전환한다.
- 양육자 : 부족한 양육자와 헌신된 순장을 생산한다.
- 새신자 :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등록교인 모두가 순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